

<2013년 11월1일 금요일 선생님 명설교 2006년 10월 1일 주일말씀>

복음을 전해서 거둬들여라

본문: 요한계시록 14:16, 디모데후서 4:2, 누가복음 5:4, 마태복음 9:37

<계14:16>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딤후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눅5:4>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마9:37>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라.”

할렐루야! 다시 주일 단상에서 모든 온 세계의 섬리나라 여러분들을 또 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주일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말씀의 본문말씀을 보고 이어서 찬양 드리며 그 후에 말씀으로 또 나타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말씀입니다. 17장에서 뒤로 두 장 넘겨서 핵심만 읽겠습니다. 14장에 있는 말씀을 죽 읽어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핵심적인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대강 알고 있는 구절인데 다시 한 번 봉독하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한 절만 봤습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죽 15장도 16장도 17장도 상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장에는 대개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악한 자들이 활동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낫을 휘둘러서 생

명을 거둬들이고 생명들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오게 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16장에는 “때가 되기 전에 부지런히 하느 사명자들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17장에는 그들을 이상세계로 이끌어주며 역사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17장까지 보고, 14장에 있는 본문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도 오늘 본문말씀인데 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시대의 말씀을 들은 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줘라.”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도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내 같은 말씀들인데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은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 한 군데를 더 본문말씀으로 삼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라.”

많은 생명들 중에 하나님께 데려올 자들은 너무 많은데, 그들을 데려올 자들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시대 때에도 참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 품으로 데려올 자들이 너무 많은데, 데려올 자들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몇 대 몇입니까? 수만 명씩 있는데 전도자들은 한두 명씩 가서 전도하고 돌아다니니까 한 명이 가면 한 명 데리고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두 명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큰소리치고 옵니다. 그러나 100명이 가면 100명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많아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말씀은 네 군데를 봤는데, 본문말씀을 중심해서 앞뒤로 여유 있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도 읽고 뒤도 읽어보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성서를 핵심만 봉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주제말씀은 말씀을 하면서 주제를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이 시간은 세계의 모든 50개국 나라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웅장하게 찬

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의 같은 시간에 할 것입니다. 그전에는 날짜가 달라서 각각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같은 시간에 말씀을 듣기로 하고 아시아는 거의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유럽까지도 의미 깊게 말씀을 같은 시간에 듣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간을 맞추느라 밤중에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동시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모두 악기들을 내어 조율하고 음정을 조정하기 바랍니다. 나는 다시금 지휘하러 나오겠습니다.

찬송은 “섭리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248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같이 인맥이 통하는 찬송으로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섭리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사람들이 돌아오네.” 요즘에 선생이 낯을 휘두르니까 여러분도 같이 휘둘러서 생명들이 돌아오고 있지요? 실감 있지요? 역시 낯을 휘둘러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거둬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과 더불어 여러분이 요즘에 같이 밭장구치면서 손발이 되어 낯을 휘둘렀더니 많은 생명들이 돌아와서 너무 좋고 기쁠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좋고 기쁜데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동안은 잠자는 사람들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을 손을 댔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체가 일어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다뤄 나가자고 오늘 말씀이 올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 신입생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또 먼저 온 자들을 불러 심부름을 시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고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올 수 있느냐? 이 세상은 그냥 가다가도 들을 수 있는 곳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다. 다 내가 불러서 오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불러서 왔는데 나가는 사람은 또 누구니까?”

“그들은 불렀는데 하나님이 부른 것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갔지. 그 중요한 것을 모르고. 그래서 다시 쫓겨남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불렀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불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서 합당치 않다고 쫓아 보냈어.”

항상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못해서, 불렀는데 나가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합당치 않으니까 또 내보내게 됩니다. 대개 보면 불렀을 때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사람이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것이 확실합니다. 왜 그렇게 아는가 하면, 하나를 보면 백을 알고

천을 알지 않습니까? 천재는 천 가지를 압니다. 그와 같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이고, 하나를 보고 어떻게 천을 알지?’ 남자는 다 나 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있는 남자가 구조가 같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또 한 사람을 보면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을 수십억을 봐도 여자의 구조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를 알면 백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부름을 받고 온 것을 볼 때 그냥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불렀구나.’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적으로 불렀는데도 부른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는 9살 때부터 교회를 갔습니다. 내가 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후에 산에 가서 깊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서고 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너무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그것을 깨닫고 제대로 하니까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입이 조금 풀렸으니까 인사하고 또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온 분들이 한 교회에서 한 명이 왔든지, 두 명이 왔든지 했어도 온 지구상에서 주일날 다시 온 사람들의 수가 꽤 많습니다. 주일날 한 교회에서 한 명씩만 와도 큰 교회 인원만큼 옵니다. 그러나 한 명씩만 와서는 우리가 흑자가 안 됩니다. 많이 오는 데는 10명도 오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 온 여러분들과 오래된 여러분들, 그리고 와서 한창 말씀을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은 또 주일말씀을 듣게 되니까 반갑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뜨거운 악수를 하면서 “오늘 설교 좀 잘 해주세요.” 하고 나는 “오늘 설교를 좀 잘 들으세요.” 하겠습니다. 반가우니까 우리 모두 악수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악수는 서지 말고 그냥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악수하겠습니다. 처음 본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고 정말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왔지만 나는 하늘 사명을 받고 와서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하늘 품까지 인도해서 가야 될 사람입니다. 책임이 크지요? 나도 많이 격려해주시고 그리고 늘 염려를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마치 먼 나라로 비행기를 태워서 10시간씩 조종해서 가는 조종사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같은 운명 속에 있으니 걱정이 됩니다. 하도 많이 해봐서 이제 유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이 시대의 구원열차에 태우고 구원비행기에 태워서 가는 입장과 같습니다. 이것은 1, 2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까지 합니다. 그때까지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조종해서 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의 말씀은 무엇인가 모두 잘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하고 근본으로 잘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지요?

오늘 처음 온 여러분들,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말을 빨리 해서 빨리 알아듣게 해야 하는데 느리게 하는 것은 세계 각 나라가 동시통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역관들이 일이십 명이 아니고 각 나라에 수백 명이 통역을 해줍니다. 그래야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역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이 가서 번역해서 그것을 보면서 동시통역을 해도 조금만 말씀이 빠르면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다 보면 말씀이 또 빨라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니까 이해하시고 천천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구름 위에 계신 자가 낮을 휘두르니 곡식이 베어졌더라” 이런 말씀인데 묵시의 말씀입니다. 성서의 말씀은 묵시로 된 것입니다.

항상 성경말씀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알면 성경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낮을 가지고 벼를 베고 곡식을 베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와 같이 구름 위에 계신 자가 낮을 휘둘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구름 위에’ 하면 저 하늘의 구름 위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청중의 구름 위에’라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을 ‘구름 위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구름 위에 앉으신 자가’ ‘자기를 구세주로 보고 따르는 자들 위에 서 있는 자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말씀은 주인공이 아니면 잘 못 풀니다. 거기까지만 푸는 것입니다. 계급으로 볼 때 어떤 장관이면 장관 선에서만 정치 비밀을 가지고 있고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지 안에서만 어떤 문제를 풀지 그 이상은 못 푸는 것입니다. 합당하지요? 이치가 맞지요?

그와 같이 선지자는 선지자만큼만 성서를 깨닫고 풀지 더 이상은 못 풀니다. 그리고 구세주는 구세주만큼 말씀을 풀고 사명을 하지 더 이상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사도들도 사도들만큼만 하지 더 이상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치로 볼 때, 손이 하는 일은 발이 한계를 넘어서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입장과 같이 성서의 입장도 그 사명을 가져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치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성서를 풀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것 없습니다. 내가 사명을 받고 이 시대에 맞추려고 이미 30년, 40년 전부터 성서를 풀면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이제야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한 20년 동안 전해왔습니다. 나를 20년 동안 성서를 풀고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성경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본문말씀을 충분히 읽어야 설교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꼭꼭 읽어주세요.

내가 작년인가 오래전에 어떤 중국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은 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인데 성경을 이야기했더니 한 번 읽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 읽었는데 머릿속에 배어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갑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통역을 통해 들어보니까 “문학서적으로 읽었는데요. 뭐.”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도 성경을 한 번은 읽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과연 나를 좇고 열심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한 번은 꼭 읽었겠지.’ 그 생각이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성경은 꼭 읽어봐야 됩니다.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읽으면 반드시 뭔가 크게 감동이 될 것이고, 그리고 크게 여러분에게 와닿는 말씀이 풍성히 부닥쳐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온종일 한번 “하나님, 오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딱 한 번 보여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꼭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보여달라고 하면 성령님은 감동으로, 예수님은 특히 여러 사랑으로 깨우쳐주든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말씀도 하십니다. 꼭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루를 정해 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보여 달라고, 선생님께 하나님이 늘 대화하면서 같이 사신다는데 우리도 할 수 없냐고, 선생님은 늘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느끼냐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아무것이야, 뭐하자.” 이렇게 해야만 역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못 듣습니다.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도 보면 제자들이 내가 천리만리에 있다고 멀리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제자들은 제자라기보다 종이 라고 할까요? 멀리 있어도 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는가 하면, 모두 보고 받고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손을 잡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천리만리에 있어도 일을 하십니다. 영계에서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손을 잡으면 바로 손을 잡습니다. 그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볼 때 육계로 따지면 100리, 200리 거리가 차이가 있지요? 그러나 영계의 세계는 동일하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한 주관권의 세계에서 보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잘 때 꿈에 보면 그 사람은 분명코 수억만 리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코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조금 했는데, ‘구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따르는 자들, 그 인생 구름들을 말했습니다. “그 위에 계신 이가 낮을 휘두르매 많은 곡식이 베어짐을 받고 창고에 들어움을 받더라.” 지도자가 해야 됩니다.

요즘에 잃은 양을 찾자 해서 “모두 교회에 나오다가 못 나오는 사람들에게 가보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환난 때문에 못 나오고, 누가 악평하면 움츠려서 못 나왔는데 그것을 또 알아봤을 때는 ‘그냥 나오기가 뭣하다’ 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잃은 양을 찾아서 교회 나오다가 만 사람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지가 오고 싶으면 다 쫓는데 오겠지. 괜히 만났다가 마음 변한 사람을 만나면 속상한 말을 하는데...” 해서 안 가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 가운데 관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 관리하겠다” 하면서 머리가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20여 일 동안 관리를 계속 했습니다.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여러분이 눈치 채고 같이 관리를 하게 돼서 한 교회에 두 명, 세 명, 네 명씩 다시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명, 네 명이 오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들은 다 가르친 사람들이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은 그런 일을 했는데, 이와 같이 낮을 휘둘러야 됩니다. 여러분 청중 가운데 서 있는 선생이 낮을 휘둘러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붓을 휘둘렀습니다. 붓을 휘둘러서 이제 어느 정도 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가야겠습니다. 붓을 휘두른 것이 참 많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하면 그야말로 무드럭지게 억수로 해버리고 맙니다. 한 20여 일 동안 편지를 써서 지구촌에 편지를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썼습니다. 개인편지는 그렇게 다 못합니다. 전체에게 쓰고 개인에게도 쓰고 해서 전체가 다 받아봤습니다. 내가 하나하나에게 편지를 쓰려면 아마 1년을

꼬박 써야 개인 편지를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 써도 그렇습니다. 내가 편지를 써도 누구처럼 1시간씩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월남에 있으면서 펜팔 하는 편지를 쓸 때 한 장을 가지고 보름을 썼습니다. 지금은 편지 쓰는 데 초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저 1분이면 1장씩 씁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장하고 보내고 뭐하고 하는데 적어도 3분이상이 걸립니다. 목시의 말씀을 받아써서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각 교회에게도 편지 써주고 전체에게 써줘서 그렇게 관리를 해서 교회도 안 나왔는데 그 편지를 갖다 주니까 나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심부름하는 애가 갖다 주기가 뭣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가봐라.” 해서 말씀의 낫을 휘둘러서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씩 해야 됩니다.

그것이 거의 끝나서 한 3일 전부터는 여러분의 편지를 못 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억수로 옵니다. 20여 일 동안 편지를 쓰며 낫을 휘둘렀더니만 어마어마하게 편지가 와서 하루에 보통 몇 백통씩 날아오는데, 지구촌에 편지를 받기로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입니다. 오죽 많이 받겠습니까? 그것을 다 읽었는데 3일 전부터는 읽을 수가 없어서 지금은 포기상태입니다. 그 몇 백통을 읽고 그 사연에 다 결제해서 편지 쓰다 보니까 그것으로만 평생 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길과 같아서 직진하다가 좌회전 할 때는 탁탁 꺾어야 됩니다. 계속 직진하다가 차가 튕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점을 생각하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꼭 결제할 것은 결제할 것을 기다립니다. 각 교회에서 하나의 결제를 내보내도 한 500개씩 옵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매일은 보내지 않겠지만 세계 각 나라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기본적인 것이 아마 100개, 150개는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설교를 많이 할 때는 하루에 5번씩 합니다. “아니, 선생님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요?” 하겠지만 돌아다니면 그렇게 못합니다. 앉아 있기 때문에 계속 세계 각 나라에서 요청이 들어오는데 집회할 때 설교를 해줘야 되니까 해줍니다. 그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기는 좋은데 어렵다는 것입니다. 캠퍼스에 쪼개어서 설교해서 보내고, 중고등부에 보내고, 예술단에 보내고, 목사님들에게 교육시켜서 보내고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못 읽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기 바랍니다. 묶여 있습니다. ‘아, 내 편지 못 읽네.’ 할 것인데 두고두고 읽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두고두고 조금씩 틈이 있는 대로 읽어보겠지만 다른

일을 하다가 읽으면 다만 5분이라도 쉬어야 되는데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낮을 휘둘러서 이렇게 추수를 했습니다. 이제는 말쑤를 휘둘러서 추수를 하려고 하니, 그것은 여러분들 전체가 같이 또 움직이자는 것입니다. 이제 9월이 다 되었습니다. 명절이 돌아오는데 10월 한 달, 11월 한 달, 두 달 동안만 여러분이 허리를 펴고, 이 낮을 휘두를 테니까 나와 같이 이 추수에 같이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새로운 생명들이 오니까 너무 반갑고 좋지 않습니까? 반드시 거둬들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많이 씨 뿌린 것도 거둬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씨를 뿌리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뛰고 조건을 세우고 했으니 얼마나 거둬들여지는지 우리가 낮을 한번 휘둘러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 여기에서 말쑤의 낮을 휘두르면서 갈 테니까 휘두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단을 묶고 거둬들이고 지어 나르고 타작을 하고 막 해야 되니까 거기에 손발을 맞춰서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쑤에 집중해서 낮을 휘두를 것이고, 한 20일 동안은 붓을 휘둘러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기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같이 뛰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제 모두 팔딱 팔딱 살아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힘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고 흥겨우면 춤이라도 한번 춰야 되고, 흥겨우면 마이크 잡고 노래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창곡을 부르든지 하면서 무대를 장식하고 끝나야지 흥겨운데 그냥 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잃은 양도 찾고 해서 좋고 흥겨울 것입니다.

사실상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을 때 그 양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찾지 않았던 양들이 여기저기에서 음매 거러서 산골짜기에서 끌고 들어와서 그것도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원래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전쟁이 끝나면 거기를 가 봐야 됩니다. 아군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인원이 제대로 있나 확인하고 없으면 전쟁하던 장소로 빨리 가 봐야 됩니다. 혹시 적군들의 총에 맞아 죽었는지 쓰러졌는지 빨리 가서 발견하면 빨리 구출하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나가 넘어진 사람들이 있어서 이번에 선생님이 그 작전을 한 것입니다. 20일 동안 아주 밀어붙이기 작전을 했습니다. 그 작전이 큰 것은 끝났지만 뒤처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말쑤를 휘둘러서 시대의 생명들이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쑤를 주면서 시작할 것입니다. 한 두 달 동안을 정해놓고 밀어붙일 것입니다.

금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는 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선생님의 술어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전도하는 해?’ 그랬는데, 환난이 일어나고 보름동안 연속적으로 방송이 나왔었습니다. 사실상 그 방송이 그만큼 나올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번 나오고 말 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알 하느라고 방송으로 계속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알리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하는 데 좋은 것입니다. 무조건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냥은 누가 우리를 방송에 내 줍니까? 안 내줍니다. 나쁘다고 할 때는 방송에 쉽게 냅니다. 그것은 공짜로 막 내줍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라고 광고하려면 피알해야 되니까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나쁘다고 할 때는 역시 돈을 안 내고도 방송을 해줍니다.

일단 그렇게 나쁘다고 했는데 “우리가 뭐가 나쁘냐? 뭐가 나쁘다는 거냐? 도대체. 그것은 전혀 상관없음. 전혀 100분의 1도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러? 우리가 잘못 알았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르쳐줄게.” 하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렇고 저렇고 하며 “야, 세계적으로 큰 단체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많고 가장 세계로 쏠아지는 역사를 하고 있는데 뭐가 어떻다는 이야기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는가 와서 보라. 구름떼 같이 몰려드는 이 젊은이들을 보라. 와 보라.”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 방송에 나온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구나.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가서 “뭐가 나쁘냐? 어떤 거냐, 도대체?”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출할 수 있고, 자기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는 하나님의 역사라서 하나님을 가로막는 일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야 되고 증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할 일을 함으로 마음이 떳떳하고 다리를 뻗고 하늘 앞에 하늘을 쳐다보며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러 모두 왔지요? 처음 온 사람들은 방송에 나온 대로 그럴 사람 같은가 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유가 있나 관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세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일편단심 만들어서 지금은 세계로 쓰고 있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을 그렇게도 나쁜 놈이라고 하고 최고 죄인 중에 죄

인이라고 했는데 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와서 그렇게 다니는지를 알았습니까? 시대가 갔을 때 겨우 알았고, 그 당시에 안 사람은 100분의 1, 1000분의 1 되는 제자들만 알고 따라갔습니다. 그가 와서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그를 이단시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못 박아 죽여 버렸는데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요, 그렇게 큰 성인인지를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몰라서 죽고 몰라서 못살고 몰라서 일 저지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자기 죽을 날은 고사하고 자기 죽을 10분 전, 10초 전에도 모르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월남에서 전쟁할 때 보니까 자기가 죽는데 10초 전에도 모르고 뛰어 돌아다니더라는 것입니다. 10초 전에도 모릅니다.

나도 내가 죽을 것을 10초전에도, 30초전에도, 혹은 3초 전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전져렸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은 정말 앞을 못 보는구나. 그러면 뒤를 보면 좀 볼 수 있을까?’ 했더니 뒤는 보였습니다. 뒤는 걸어왔기 때문에 보였는데 앞이 안 보였습니다. ‘이거 내가 봉사구나. 정말 모르는구나. 이것은 신의 계획인가?’ 전혀 앞날에 대해서는 모르고 죽음이 코앞에 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모르게 왔는가?’ 하고 생각했을 때 역시 모르게 한 것도 있지만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다 보였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것만 하나님께서 가려서 모르지 그렇지 않으면 압니다. 아는 데 3초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씹먹어라. 왜 너희 부모님들이 사기꾼들한테 사기 당할 때 나한테 안 물어봤느냐? 물어봤으면 내가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나를 씹먹어라.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도 나를 씹먹고 단체도 나를 씹먹고 개인도 나를 씹먹어라. 나한테 물어봐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면 잘 모를 것이다.”

어떤 것은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줬다고 합니다. “다 씹먹어놓고 그것도 몰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지나갔는데 네가 몰라서 놓친 것이 있어. 그때 그것이 기회였어. 네가 원했던 것이 그렇게 왔어.”

“나는 쿡을 원했는데 왜 팔으로 지나갔을까요?”

“하이고, 시대가 뒤바뀌어서 그렇게 주는 거야.”

그와 같이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 꼭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합니다.

어제 내가 편지에 보니까 청년부라고 적혀 있었는데, 내가 그 편지를 읽고 참으로 속이 상했습니다. 한 사람은 2800만원, 한 사람은 3800만원을 내서

들이 합해서 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집 주인이 아주 계획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미 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혀 놓고 감쪽같이 해서 함정을 파놓았는데 애들이 그것을 모르고 간 것입니다.

다 알아보고 갔으면 괜찮을 것 아닙니까. 기도를 해보고 가면 될 것 아닙니까. 나한테 물어봤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를 사기꾼이라고 안할지라도 “야, 확실히 알아보고 가라. 담보 잡혔나.” 해서 가서 등기를 떼어봤으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가 은행담보로 잡혀 있다고 돈만 떼이고 그냥 끝나 버린 것입니다. 그 애들은 그 돈을 10원도 못 받고 그대로 떼였습니다. 결국 은행에 이야기했는데 은행에서는 “너희들은 돈도 안 주고 그 집을 사지도 않았는데 그러느냐?” 하면서 자기들 돈을 손해 보지 않으려고 썩 압류해버린 것입니다. 집주인은 전문적인 사기꾼이니 “우리 집에 와서 살지도 않은 자들이다.”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애들이 하나는 강원도에 있고 하나는 아산에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갔다 오려면 경비도 많이 들고, 법정문제를 벌이려면 할 줄도 모르니까 나한테 편지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이놈들아. 일 저지르고 죽었을 때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해. 죽은 사람 살리기는 너무 어려워.”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사람 살린 것은 기절초풍하게 많지 않았습니다. 죽고 며칠 되었을 때 살린 것은 모르지만 죽은 지가 벌써 한 달 되었는데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신앙인도 죽기 전에 살려야 되고 죽은 다음에는 살리기가 힘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도 상하고 제자들이 무지한 것을 보고도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얼마나 큼니까. 6천만 원이 넘는 역대에 가까운 돈을 그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단도 거기 쫓아가 보고 누구도 쫓아가 봐라.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

사기꾼들한테 걸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큼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도 화가 날 것입니다. 섭리만 뛰고 열심히 뛰던 애들이 그렇게 되니까 속상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속상하다고 교회 안 나오면 이제까지 수고한 것이 헛일이 아니냐”고 하면서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속초 교회의 교역자 영민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내가 외우고 있습니다. 누가 전화해서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기 바랍니다. 우리 일꾼 중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기꾼들한테 사기 당하고 고스란히 떼이게 만듭니까. 그것은 본격적으로 추격해서 공의롭게 찾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다. 내가 기도를 해놓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놓았습니다.

사기 당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은 꼭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에도 그런 틀이 있어서 제자들이 방을 얻을 때도 꼭 물어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나이는 20살, 25살씩 먹었어도 사회를 모르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물어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앞날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의인들도 다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방을 얻을 때나 무엇을 할 때는 조심하고, 전세 얻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한국의 경제가 안 좋으니까 떼어먹어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외국의 유럽 같은 데는 그렇게 떼어먹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은 사기의 나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도 사기를 당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사기를 쳤던 그놈은 죽었습니다. 금산의 최침봉이는 죽었습니다. 내가 용서해주고 사기 당하고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정론을 떼고 그냥 끝났는데 원통하고 분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못하도록 “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미리 가르쳐줄 테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나에게 미쳐 못 물어보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별기는 못할망정 있는 것은 뺏기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돈을 잃게 되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포자기 해버리고 눈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사기 당했을 때도 눈이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만 있어서 자살 장소만 찾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돈을 평생 동안 벌어도 내가 못 다 갚는데 어떻게 하나?’ 했습니다.

이 사기꾼들을 위해서 내가 아주 전문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사기꾼 심판이 몇 번째에 들어가는지 압니까? 아주 앞에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쓸 때 ‘사기꾼론’도 일부 썼지만,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어보고 같이 의논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생활 정보도 가르쳐주고 말씀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의 낫을 휘두르니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고, 말씀을 듣고 들어오도록 하라.” 했습니다. 주일말씀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을 말씀을 선포해줄 때 그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누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런 이야기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성경이야기는 읽으면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니까.

구원의 역사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 생활을 또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것을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한번 하면, 온 세계에 50개국까지 복음이 나가 있는데 그 나라의 젊은 애들이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면 외국에서는 ‘한국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우리나라는 없는데.’ 합니다. 그들은 참고로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서로 지켜주고, 우리 섭리사가 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국가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살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얻을 때에 다 뒤져보고 절대로 확실히 보고 얻을 것! 작은 돈을 갖고서 얻을지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개인 집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갔어도 잘못하면 그냥 떼어 버립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설교 은혜 받고서도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는 문을 꼭 잠그고 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니까.’만 하지 말고 문을 잘 잠그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많이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문을 잠그었는데도 뛰어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심하고 기도하고 근심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한번은 우리 제자들에게 밤에 뛰어 들어와서 돈 없다고 얻어 때리고 피를 흘리게 만들어 냈는데 그 녀석을 내가 100% 잡을 수 있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그를 용서해주고 제자들을 내가 격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원수까지 내가 사랑해주면서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 나가니까 이 역사가 가지 내가 싸울 것을 다 싸우면, 우리를 따르는 무리가 적습니까? 모두 자꾸 갈썩거리고 까불고 섭리를 나간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는데, 그런 못된 것들의 말을 듣지 말고 열심히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함으로 대개 악한 자의 말을 듣습니다. 선하면 선한 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괜히 미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누가 이런 짓했다고 하면 거기에 쫓긋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법관들이고 뭐고 누가 당했다 뭐하다 하면 거기에 귀가 쫓긋해서 조사 들어가서 그쪽만 추적합니다. 한 가지 내가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행한 대로 갚아주라고 합니다. 구원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악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악인을 위해서 아무리 십자가를 지어줘도 악인은 거의 안 돌아옴

니다.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이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어 줬는데 돌아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십니다. 다만 여유가 있다면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넓혀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돌아와도 뭐 써먹을 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낯을 휘둘러서, 여러분들은 시대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시대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냐?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도 옛날 같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겠느냐? 그렇게 살겠느냐?” 하며 그런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서 병든 자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역사하니 병이 낫지 않느냐!” 하고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주고 역사를 보여주고 해 나가야 됩니다.

월명동 성지 땅도 가만히 있으면 누가 옵니까? 맨날 입이 아프도록 해당한 명씩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하러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를 써라.” 해서 내가 썼습니다. 홍보 책자에 일사천리로 글쟁이가 글을 써서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들을 보고 모든 사람이 혹 하고 가보고 싶다고 한답니다. 가보고 싶지요? 홍보책자가 나왔는데 여러분에게는 아마 못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막 주지 말고, 돈도 많이 들어갔으니까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고 개인적으로 막 줘서는 안 됩니다. 섭리사의 사람들도 원한다고 해서 더 박아주라고 했으니 더 박을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면 생각을 달리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를 홍보한 것입니다. 홍보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속 구름떼같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해 봤는데 왜 와보지 못 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조정으로서는 세계적인 조정을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상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했다는데 믿어지는가 한번 와봐라. 와보면 으악 할 것이다. 사람으로는 못 한다. 힘들다. 아직까지는 그런 구상을 못 했으니까.” 하며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쓰여지는 구상은 또 아주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구름떼같이 모여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풀려서 못하냐는 것입니다. 가서 보여주고 이야기 해주면 사람들이 자꾸 옵니다. 거기를 전도의 터전으로 삼고 설명도 해주고, 거기 장소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커서 벌써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치 되어서 “저봐라” “여봐라” 할 정도로 되고, 단맛 쓴맛 겪으면서 10년, 20년, 30년 따라 왔는데 끔찍도 없이 이상 없이 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구원시킨다고 했는데 남 구원도 못 시키고 자기도 죽어 버렸지 않습니까. 자기가 구원한다고 했는데, 남을 구원하러 왔다가 다른 짓만 하면 그것이 금방 표가 납니다. 우리는 일사천리로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지구가 돌듯이 무게 있게 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말하여서 모두 오도록 하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참으로 이 역사에 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라고 해야 될 일꾼들이 모자랍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정말로 추수할 일꾼들이 적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정말 그러합니다. 정말 그 시대에도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보니까 정말 몰라서 그렇지 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을 바로 살고 온전히 살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입고 모두 사는데 뜻 없이 살고 의미 없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뜻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돈 벌게 하는 사장들도 많고, 돈도 벌 수 있게 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많아서 서로 싸울 정도로 많은데도 그것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왜?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자가 있어야 됩니다. 인류를 구원해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먹는 것만 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지만, 먹는 것을 못 먹어서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생 문제가 부딪혀서 인생 번민 걱정을 합니까? 입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걱정 근심합니까? 잘 곳이 없어서 그렇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말은 안하지만 하나님과 일체 되지 못 하고 하늘의 구원자를 못 만나서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10년, 20년 따라온 사람들을 정말로 믿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한번 믿어 보십시오. 하나님

께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루라도 믿었냐?” 그렇게 물을 때는 정말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섭리를 만난 사람들이 100배, 200배, 300배, 400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생활을 쪼들려서 못합니까? 누구는 생활 안 해봤습니까? 나도 어렸을 때 여러분 같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서 각오하고 눈물겹게 목숨을 걸고 몸부림치면서 뛰어나와서 이런 해변가를 무릎 꿇고 기어 올라오듯이 기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도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온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뭔가 와닿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섭리가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예 비교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비교를 아예 하지 말라. 어떻게 소나무와 단풍나무를 비교할 수 있냐?” 상록수와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바다와 강을 비교할 수 있느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비교가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나와 같이 낚을 휘둘러서, 말씀의 낚을 휘둘러서, 시대 말씀을 휘둘러서 모두 거둬들이자!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낚을 휘두르라고 했으니 같이 하나님이 거둬들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3주 전에 ‘주의 관리’라고 하면서 “말만 하지 말고 관리 하라”고 해서 관리가 시작 되면서 그야말로 글자 수를 알 수 없고 편지 통수를 알 수 없도록 많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뛰고 달리고 열심히 해서 말씀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선불리 하지 말고,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듯이 여러분도 깊은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 깊은 말씀, 시대의 말씀을 전해줘야 온다는 것입니다. 시대 말씀을 전해야 시대 앞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럭저럭 전하지 말고 다시 가 보라. 다시 전해 보라. 많은 사람들을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정말로 일꾼이 적다.” 사람은 수만 명씩 있는데,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몇 명씩 가서 전도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되겠느냐. 모두가 추수 일꾼들이 되어서 추수하라. 너희들이 직장도 다니면서, 캠퍼스에서 학교 공부하면서, 뛰고 달리면서 생활 속에 전도하라. 전도 하라!” 했습니다.

선생도 전도해서 이 구름 떼를 만든 것이지 전도 안 해서 됩니까? 내가 직

접은 안 하지만 말씀을 쥐서 모든 제자들이 듣고 감동 되어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데려다 놔라! 내가 말씀을 할 테니까!” 그래서 말씀 듣고 모두 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가장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에 핍박을 많이 받느냐 하면, 그 전에는 때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놈이 이단이다, 저놈이 이단이다 하며 나쁜 놈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교주들이, 그야말로 지도자들이 죽어 버렸습니다. 죽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교회도 다 청산했습니다. 우리 하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화살이 다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커서 벌써 세계를 향해 와서 세계를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온 세계의 나라들을 지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한국에 오려는가?’ 하고 모두 나를 쫓는 자들이 쫓아다니는데 호랑이를 쫓아다니는 토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데 악인들이 만날 인터넷 떠들어서 나쁜 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위대로 받으니까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하며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여러분이 전도해서 새로운 사람이 오듯이 계속 해서 시대의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자도 기도해서 병도 낫게 해주고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월명동에 엑스포 통해서 소문을 듣고 많이 왔다 간다고 합니다. “한국에 이런 공원이 있단 말이나? 참 너무 아름답다.” 하고, 유럽 사람들도 보고 아름답다고 너무 멋있다고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시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땀 흘려 만들어 냈는데 와서 보고는 “또 오겠다”고 한답니다. 여러분도 부지런히 뛰고 달리고 하기 바랍니다.

엑스포도 민족적인 큰 박람회이니까 가서 구경도 해보기 바랍니다. 행사가 삼분의 일밖에 날짜가 안 지났는데 생각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5,000대씩 차들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엄청나지요? 그렇게 엄청나게 와서 한 4만 명씩, 5만 명씩 사람들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큰 행사에 참석해 보기 바랍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거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요즘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대학부 지도자들, 청년부 지도자들에게 계

속해서 교육 말씀을 떠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고기 잡는 데 있어서 조직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물이 필요하고, 배가 필요하고, 파도가 억세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갈지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는 사람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으니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리 같은 세계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을 이리로 보고 말씀을 듣고 시대를 쫓는 사람들을 양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억센 세상에 가서 전도할 때에 조심하고 꼭꼭 혼자 다니지 말고 둘씩 어울려서 다니라고 한 것입니다. 유혹 받으니까, 세상에 함정 파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가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면서 열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달 11월달은 나와 같이, 내가 낫을 휘둘러 말씀을 휘두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손발을 맞춰서 가을철에 추수하듯이 우리 이 시대에 섭리의 가을철에 추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재도 물을 안 주면 바로 죽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절대 필요합니다. 땅에 심은 나무들은 그래도 습기가 차 있어서 웬만한 가뭄은 견디고 특별한 가뭄 때나 물 안 주면 죽지만 이런 분재들은 가무나 안 가무나 그냥 놔두면, 한 열흘 동안 가면 바로 잎사귀가 말라 버립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수시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본인이 힘드니까 ‘아이고 남 관리보다 내가 죽겠다.’ 하는데 남의 생명을 관리할 때 자기도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각 나라는 전도하자! 생명을 이끌어 오자! 내가 생명을 이끌어 와서 이와 같이 세계적인 많은 생명들을 오게 했다. 누가 어찌고저찌고 하느냐?”

누가 이 시대를 끌고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나이 먹고 늙어서 이제 못 합니다. 알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지 노인들은 전쟁을 못 합니다. 노인들이 포탄을 어떻게 짊어지고 다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산을 넘고 들을 넘고 막 낙하산에서 뛰어 내리고 물속에서 수영을 하며 특공대 같이 해야 하는데, 노인들은 없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어디 노인들이 있습니까? 흰머리 난 노인들이 군대에 가서 군대생활을 합니까? 그러나 나이 먹은 사람도 지휘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장 젊고 싱싱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밖에 시대를 잡고 나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선생님도 아직 젊고 청청합니다. 옛날 같으

면 환갑잔치를 했겠지만 지금도 청청하니까 15년, 20년 정도는 거뜰히 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 있을 때 확 시대를 잡고서, 과연 우리가 환란과 핍박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날 것이냐? 잘못된 인식으로 끝날 것이냐, 뒤집어놓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장에서 볼을 찰 때도 한 볼 가지고 질 때는 막판뒤집기를 해서 확 밀어 붙이면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과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1000명에 하나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명에 하나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교회마다 전도할 때 교회 전체가 움직여야 합니다. 전체가 움직여서 풍성하게 거뒀들이고, 온 세계적으로 거뒀들여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한번 했을 때 얼마나 큰지 압니까? 한번 “전도하자!” 했을 때 “네!” 하고 대답하고 하면 교회가 10개씩 늘어납니다. 웬만한 교회가 10개씩 늘어납니다. “전도하자!” 하면, 한 교회에서 그저 두세 명씩만 해도 100명 교회 열 개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최대 힘을 내서 해보자!” 할 때는 엄청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여기를 쳐다보고 엄청나다고 하지만 더 밀어붙이라는 것입니다.

잘되는 데만 잘됩니다. 상점도 잘되는 데가 잘되고, 나무도 큰 나무 있는 데만 큰 나무가 있고, 바다도 깨끗한 데만 깨끗하지 다른 데는 더럽습니다. 관광지도 거기만 그렇게 멋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관광지처럼, 명산처럼 그런 섭리 역사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면 으악 합니다. 월명동도 기독교 목사님들이 와보더니 그러더랍니다. “우리는 뭐여? 이단 소리만 하고 있었지 뭐여? 우리가 이단이며, 우리가. 우리는 해놓은 것도 없이 하나님께 창피스럽고 더럽고 너무 웃기게 살은 거야.”

기독교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뭐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애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놓은 것도 없이 서로 교회끼리만 빼덕거립니다. 한국 교회들이 교회가 수만 개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씩만 도시씩만 했어도 큰 공원을 만들어 놓고 여봐라 하게 크게 만들어 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명동에 와서 쳐다보고 심통이 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애들이 고사리 같은 손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봐라. 이들이 무슨 이단이나? 우리가 자각해야지.” 그 이야기를 애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꾸 월명동도 구경시켜주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가자! 정말로 한번 갈 곳이 있다!” 하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만리장성도 그렇게 큰 돌로

쌓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구상해서 만들었는데 한번 와봐라. 하나님이 구상했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이 했다고 하고 내놓았을 때 “야!” 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괜히 피죤피죤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러나 선생님께서 100톤짜리, 80톤짜리를 가져다가 무드럭지게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전장 한 600미터 정도의 길이로 쌓아버렸습니다.

그 설명하는 것이 책자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시켜서 했다. 어떠냐? 우리 갖고는 못 한다. 우리는 해본 사람 아니다. 조정사 그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게 못 하고 그것으로 30년, 20년 했던 사람도 못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한 일이 없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런 것을 해본 일이 없는데 하겠느냐?” 하면 됩니다. 거기를 구경시켜주면 월명동을 보고 나쁘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섭리의 말씀을 어차피 우리를 악평했으니까 말씀을 딱 전해 주고, “그러면 너희 선생이 누구냐?” 하면 “누구긴 누구야? 우리 구원하러 왔지. 구원 받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었으면 세상으로 흘러서 지금 개짓 하고 살 것인데... 우리 구원 받게 한 구원주다. 나는 구원 받고 지금 가고 있다. 나는 기독교도 거쳤다. 다 거쳤다. 여기도 저기도 거쳤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짹짹 하고 끄끄끄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죽을 때까지 이야기 안 할 것입니까? 반드시 물에 빠져서 허우적치는 것을 내가 구출해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까? 입을 찢어놓을라. 안 하면 입을 다 찢으라고 했습니다. 왜 못합니까?

나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림해서 나에게 왔다. 예수님이 강림해서 왔다.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놔뒀으면 그 산골짜지에서 지금 자살해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왔어도 안 보인다. 영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말씀 하신다.” 그러면서 증거하고, 월명동을 다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월명동을 다시 손대서 깨끗하게 만들어 뒀으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에 신 정도 쓰고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야 와서 여봐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구경시켜 놓으면 다 좋아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섭리사도 그 정도의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면 으악 합니다. 섭리사 말씀을 들으면 으악 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곳을 만든 주인공이 누구냐?” 해서 나라고 하면

“믿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진리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선생님이다.”

“믿기 힘들다.”

“믿어야 된다.”

그러면 됩니다. 왜 만들어 놓고 짹짹거리고 있습니까? 어디에다 내놔도, 누가 봐도 으악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밀하게 구경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다. 어떻게 갖다 놓았다. 이 둘은 사실상 전설 같이 갖다 뒀다. 이것이 중장비가 있다고 쌓는 것이 아니다. 돈이 있다고 쌓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이렇게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다.” 하듯이 “이 말씀은 인간의 머리로 못 받았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라고 주신 말씀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요즘에 새벽에 기도하면 늘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판단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가면 여러분들에게 이상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으면서도 편지 써서 전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 불가능한 사람들을 편지 써서 다 끌어 옵니다. 나에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만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네가 시동을 걸으면 애들도 다 일어나.” 하셨습니다. 어떻게 시동 거느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러하다.” 그런 목시가 있었습니다.

“개를 사 왔을 때 자기가 사왔다고 주인인지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지. 자꾸 밥을 주고 가서 쓰다듬어 주고 자꾸 해야 돼.”

“나는 손이 안 닿는데요.”

“편지로 하자. 편지 한 번 오고 갈 때 한 번 만난 거야.”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줬더니만 모두 그들이 왔습니다. 나는 여기에서도 전도하고 여기에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들은 산 사람도 못 살립니까? ‘아, 거기 한번 알아볼까? 어떤가 한번 가볼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대충만 봐도 여기에 올 사람들이 한국만 수백만 명이 기다립니다. 너무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안 온다고 하지만 인생에 한계를 맞고 길을 찾던 사람들은 다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다 그러다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가서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나는 이랬다. 이렇게 했다.”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애를 보내서 전도하니까 죽어도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니가 그렇게 해? 하나님이 나와 상의한 것이 있는데” 했더니 “네가 기도만 해. 기도만 하면 돼. 거기에 가서 직접 만난 것보다 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계속 편지를 썼더니 왔습니다. 왔는데 미안하니까 나에게 편지를 안 합니다. 보니까 교회는 잘 다닌다고 합니다. 그 애가 나한테 “나 이제 안 다닌다고. 세상에 너무 갈 길이 멀고 여기에서는 출세하는 것이 너무 좋다고. 세상 가서 출세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딱 기도했더니 세상으로 가는 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 세상으로 가면 다른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세상길은 막혔지만 하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하늘 길을 보면 좁고 그런 줄 알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하나를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환란이 오고 그런 핍박 받고, 그렇게 지구상의 오십억이 나를 잡아 죽여라 했어도 매일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지 않습니까? 어쩔 것입니까? 하늘을 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면 그렇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길을 오라는데 왜 안 옵니까? 너희들도 믿을 때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라! 감격하며 살도록 하라!

오늘 새로 온 여러분들, 한 명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 듣고 열심히 뛰고 달리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부모님들은 고맙게도 인터넷 방송 하면서 전화 받고 했는데 다 교회를 나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기도 꼭 해서 사업하는데 지장 없게 하고,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고, 어떤 사건들도 꼭 기도해서 결정하고 해야 합니다. 무엇을 신불리 하다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냥 실패하게 되면 그때서야 하늘 원망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이렇게 됐을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다시 위 검사도 받아 보고 간 검사도 받아 보고 혹시 무슨 병이 있는가 보고, 여자들도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 받아 보십시오. 안 해 놓고 나중에 발견되면 “아, 왜 나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됐을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를 통해서 “검사해 봐라. 검사해 봐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일일이 하나씩 여기 비디오로 비추면서 보면 있다, 없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합니까? 10

만원만 주면 사회의 병은 다 검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모두 할 수 있으니까 지혜롭게 모두 해서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진찰기 안 봐도 딱 쳐다봐서 “너 보니까 이상해. 너 사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그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맥만 잡아 봐도 벌써 알지 않습니까? 대개 압니다.

내가 방송을 보니까 한국의 남자는 5명에 한 명씩 암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 세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유발되면 암세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3명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것입니다. 무서우니까 병원에 자꾸 안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자꾸 가서 내시경도 찍어 보고 해야 합니다. 나도 일 년에 한 번씩 검토를 꼭 하지 않습니까? 검토를 꼭 해보기 바랍니다. 위 검토를 꼭꼭 하고, 짜게 먹지 말고 맵게 먹지 말아야 됩니다. 짜게 먹고 맵게 먹으면 그것은 절대 암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짜게 먹지 말고 맵게 먹지 말고, 막 신경 쓰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세포가 지랄병이 일어나서 병이 생깁니다.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꼭 기도를 해줄 것입니다. 먼젓번 주일날 내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내 옆에 왔다고 생각하고 한 명씩 손을 잡고 해주듯이 했는데, 기도 받고서 자기 병들이 나은 사람에게서 편지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궁에 혹이 있었는데 기도 받고 혹이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자기는 돈이 없어서 70만원, 80만원이 없어서 기도 받으면 나올 거라고 믿고 선생님이 기도할 때만 기다렸다고 합니다. 기도했는데 두 개가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한 개는 조그만치 남았다고 합니다. 5센티가 2센티로 줄어 붙었다고 합니다. 2센티는 어떻게 하냐고 또 편지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서 그런 편지가 많이 왔습니다. 어떤 병이 나았다, 난치병이 나았다 했습니다. 나는 못 가니까 더 애간장 타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니가 기도해 버리면 없어져 버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더니만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따가 내가 기도를 또 할 것입니다. 지금 기도를 해버릴 것입니다. 지금 말씀 듣고 뜨거운 길에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아픈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픈 사람! 옆의 사람 쳐다 볼 것 없습니다. 조금씩은 다 아픕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봉헌하고 또 기도하고 끝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오라고 했고, 첫째는 구원 받고 영원히 사는 길을 가자고 하나님이 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살 때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 안쓰럽게 고생하고 고통 받고 눈물겹게 사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들 멋있게 사는 모습 보려고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인간 무지로 인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오라고 했으니 첫째는 이 병든 것과 아픈 것들, 모든 이 병들을 다 없애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오니 난치병, 몸에는 암세포로 인해서 병들어 가는데 아픈 것을 못 느끼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병으로 아파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너무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하니 먼저는 첫째는 육신의 병들을 치료하는 광선을 더해주시어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한국에 있으면 손을 붙잡고 기도도 해주는데 내가 여기에 있어서 못 하니까 이들이 너무 안타까우니 내가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픈 것과 약한 것을 이 시간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나음을 받아라. 아버지 이들이 병든 것, 아픈 것을 나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열심히 살겠사오니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 모든 불필요한 모든 병들은 그로 인해서 생명을 앗아가니 봐두면 안 되니, 내가 신유의 낫을 휘둘러 이들을 치료하오니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해져라. 너희들의 믿음대로 나아 가기를 원하노라. 저번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병 나았다고 편지가 와서 너무 감격했는데 “에이, 이거 또 해야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아니,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닌데. 낫을 휘두르면 풀이 베어 지고 톱을 휘두르면 나무가 베어 지듯이 네가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병들이 낫겠냐? 확인하고 말고 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 믿음대로 낫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할 것은 치료해야 되겠지만 능력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간구하오니 강건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와 같이 심령의 병들도, 근심 걱정 염려 채리에 빠진 자도 그 병들을 고침 받고, 악평하는 자의 악평을 듣고 의심하는 병들도 다 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오니 모두 낫고 건강을 받고 기쁨으로 나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평강과 의와 공의가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모두 결실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도하고자 했으니 이제 모두 내가 낫을 휘두르니, 말씀의 낫을 휘두를 것이니 모두 데려오라. 못 했으니 전도해서 많은 생명들로 하나님께 오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뜻이 이들에게 함께 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말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꼭 해주고 싶었는데 잘 됐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내가 기도를 하고, 수요일도 오면 기도를 꼭 할 것입니다. 그래놓고 편지를 받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 병들어 나온 사람들은 나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간증도 하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봉헌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헌기도 해주고 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봉헌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들이 드린 모든 제물을 받으시고 시간도 받으시고 하늘 위해서 드린 인생도 받으시고 청춘도 받으시고 모두 받으시옵소서. 숨어서 이들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도, 인생의 축복을 주시고 이들에게 도우려면 끝없는 많은 것이 필요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이제 다시금 모든 죽었다 돌아오는 모든 신앙인들, 환란으로 인해서 모두 엎드렸다 오는 자들,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묻혔다가 오는 사람들과 같이 다시 재부활 해서 살아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들 잃었던 양들을 찾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들을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망과 사탄을 이기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많은 생명들을 낫을 휘둘러, 시대의 말씀을 휘둘러 오게 할 테니 하나님께서 이 생명들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드린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봉헌하니 모두가 아버지가 받으심이 크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봉헌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모두 여러분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특별한 것 없지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내가 한 4일, 5일 전부터는 여러분의 편지를 너무 밀려서 못 읽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음에 소식들을 전하기로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편지를 하십시오. 내가 보고 최대한 해주겠습니다. 하루에 몇 십장씩 하는 것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 장씩은 못 합니다.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전체가 그렇게 아시고 꼭 필요한 것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러면 모두 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축도>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낮을 휘둘러 많은 생명들이 하늘 앞에 돌아오도록 말씀의 낮을 휘두르겠다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말씀을 주시고 하실 것이니, 말씀을 듣고 많은 생명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도록 큰 은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 위에 영도 육도 강건케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과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세계에 놀아나지 않게 해주시고 의로운 자들로서 악한 자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시대를 다스려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생명들이 하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역사를 일으키니 그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죽어서 못 했지만 이제 우리는 엄히 역사를 다스려 나가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손발이 하나 되어서 시대를 잡아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신약 역사에서 기다리는 성약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우리가 말 안하면 모르고, 월명동을 그렇게 웅장하게 만들어 왔어도 말 안하면 누가 거기 있는지를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주시고 의를 채워 주시옵소서. 돈 벌려고 만들어 놓고 구경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돈 벌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들이 오면 너무 좋아하고 이상적이라고 하고 “왜 진작 몰랐던고.” 합니다. 이 말씀도 그러하다고 하니 그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 하고 주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들을 늘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삼위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 하고 영원할 지어다. 아멘.

주일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신나게 열심히 하다가 또 수요일 제단에 나타나겠습니다. 지도자들 이번에 모든 손발이 되어서 10월 한 달 11월 한 달 열심히 땀시다. 금년도 멋있게 뛰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 했는데 과연 금년도가 제일 전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되고 있습니다. 막바지에 최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선포했으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데 역사를 일으키려고 한 것이니까 이를 깨닫고 뛰고 달려야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모두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또 아쉽게 끝나야 되겠습니다.

주제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주제로 정할까요? 핵심은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나는 낫을 휘두를 테니 복음을 전하라. 거둬들여라!” “거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거둬들여라!” 이제 거둬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기만 하면 거둬들이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너는 인계만 맡으라고 했는데 왜 안 해? 인계만 하라.” 어떤 것은 인계만 하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복지는 인계만 하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가서 가기만 하면 옵니다. 의식 하지 마십시오. 절대 전도하면서는 될까 말까 하지 마십시오. 안 되면 말지 돈을 주고 투자하는 것입니까? 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일단은 들어 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야! 이단이다.” 하면 “아, 그렇습니까? 다음에 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오면 됩니다. 조개 속의 진주를 찾듯이 자꾸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과감하게 해서 1인당 사람들을 한 100명씩은 만나봐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몇 명만 해도 한 20만 명에게 일단 말씀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오는 사람은 꼭 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꼭 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꼭 옵니다. 그냥은 오기 힘듭니다.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안녕! 오늘 처음 온 여러분들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맛있는 것도 역시 사주기 바랍니다. 안녕!